

압구정 현대 하락은 착시... 아직 '긱긱'

스팟 이슈

'강남 불패' 꺾였나

3억 하락 거래 직접 확인해보니
55억·58억짜리 신고일 바뀐 탓
같은 평수 현재 호가 60억 넘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은 단연 압구정 현대아파트였다. 서울 강남의 중심으로 꼽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무려 3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5월19일 전용면적 157.36㎡의 현대6차아파트가 58억원에 거래 신고가 됐다. 이어 지난달 9일 같은 면적의 현대7차아파트가 55억원에 신고됐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강남 불패'를 상징하던 강남 대표지역의 거래가 하락으로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본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신고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55억원 거래가 먼저 이뤄졌지만 강남구청장 허가 늦어지면서 58억원 거래 뒤에 신고가 된 것이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다른 매물들은 현재 호가가 6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 하락은 거래 신고 지연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은 0.01%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청담·도곡서초·방배 등 강남서초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현장을 살펴봤다.

거래횟수 줄었지만 매매가는 유지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49)는 강남 지역 집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A씨는 "청담동 인근은 워낙 고가 단지가 즐비해 애초에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이 적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둘 사이의 균형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성수 기자 ssshin@ >> 3면에 계속**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국방의 새 장(章)을 활짝 열었다. KF21이 19일 오후 경남 사천공항 활주로를 이륙하며 청공을 향해 치솟고 있다. 뉴스시스

국산 전투기 KF-21 날아올랐다

30여분간 시험 비행에 성공
8번째 초음속기 개발국 올라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사업청(방사청) 등에 따르면 KF-21 시제 1호기는 수직 꼬리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001'과 태극기가 그려진 채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경남 사천기지 청공을 힘차게 갈랐고 착륙까지 무사히 성공했다. 이번 첫 시험 비행은 이날 오전에 진행되기로 했으나 기상 상태 등의 이유로 비

행 시각이 오후로 밀렸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비행 과정은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약 1224km/h 이상)의 속력을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와 비슷한 400km/h 수준의 속력으로 30여분간 비행해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 및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에 따라 개발된 지 20여년 만의 첫 결실이다. 사업 선언 당시에는 2015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였지만 비용, 기술문제 등으로 사업 검토와 중단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KF-X 사업 연구개발에는 총 8조8000억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힌다. 개발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방사청 등이 참여했으며 약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개의 정부출연 연구소 및 15개 대학교도 개발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해 가성비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기찬 기자 gckim@ >> 7면에 계속**

금산분리 '대못' 뽑는다

금융규제 대대적 혁신
디지털 인프라도 구축

정부는 19일 낡은 금융규제를 디지털화와 빅블러(Big Blur-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시대에 맞게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꾸려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간 협의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 대표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한 뒤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6월부터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업계의 요청과 사업화에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4대 개혁 분야로는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금산분리 완화 등) △디지털

금융규제혁신회의 선정
4개 분야 9개 주요과제

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리부지알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②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	Data,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③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자본시장 투자수요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
④ 감독행정 개선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그래픽=임수진 기자]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투자수요 활성화 등) △감독제재-검사 행정 관행 개선 등을 꼽았다. 이를 9개 주요 과제와 36개 세부 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차 검토를 끝낸 5개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hkhkim@ >> 10면에 계속

"이제는 달에 간다" 다누리 내달 발사

달 100km 고도서 탐사활동
달 상주 매프로젝트도 동참

대한민국이 드디어 달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지난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이후 그 바통을 '다누리(KPL0)'가 이어 받은 모양새다. 다누리는 최초의 달 탐사선인 시험용 궤도선으로 달 100km 고도를 비행하며 달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8월3일 발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달에 사람을 보내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참여한다. 미국이 1969년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통해 달 착륙에 성공한 이후 50여년 만에 다시 한 번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기

에 한국도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누리호 바통 이어받은 '다누리'... 7대 우주강국 입지 굳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누리는 5일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떠나 특수 컨테이너에 실린 채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올덴데 공항까지 이송됐다. 미국 현지에서 다시 육상으로 이동해 7일 오전 4시경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너베일 우주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다누리는 발사 예정일인 다음달 3일까지 한 달여간 상태 점검, 발사체 결합 등 발사준비 과정을 거치고 연료 또한 주입된다. **김기찬 기자 gckim@ >> 2면에 계속**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인천 수돗물의 새 이름

인천 하늘수